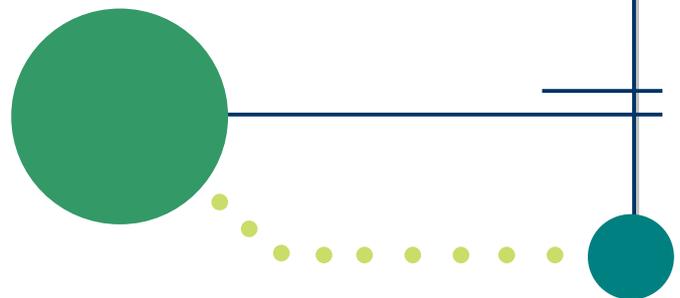




중남미 게임 시장 동향

- 칠레 현지 게임업체 Ace Team, Source Engine 기반 PC게임 출시
- Sony의 남미 콘솔게임 시장 3단계 진출전략
- e스포츠대회 KODE5, 남미 11개국서 개최



칠레 현지 게임업체 Ace Team, Source Engine 기반 PC게임 출시

Source Engine 기반 PC 게임 'Zeno Clash' 출시 계획 발표

- ◆ 칠레 Santiago 소재 게임 개발사 Ace Team Software가 Source Engine 기반의 1인칭 격투게임 'Zeno Clash'를 2009년 2월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
 - 빼어난 디자인과 독창성으로 오래 전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던 'Zeno Clash'는 당초 2008년 연내 출시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게임품질 향상을 위해 정식 출시가 2009년으로 연기
 - 'Zeno Clash'는 Valve의 Steam 서비스(온라인 유통)를 통해 발매될 예정이며, ACE Team은 현재 오프라인 유통을 위한 업체도 물색 중임

공개된 게임 내용

- ◆ 'Zeno Clash'는 2009년 3월 23일~27일 미국 California州 San Francisco에서 개최되는 IGF(Independent Games Festival)에 출품될 예정이며, Ace Team은 이를 위해 3개 신규 스크린샷과 줄거리 및 게임플레이 등의 세부 사항 일부를 추가로 공개
 - 'Zeno Clash'는 가족으로부터 추방당한 'Ghat'가 여자친구인 Deadra와 함께 게임세상인 Zenozoik 탐험에 나선다는 내용으로, 플레이어는 'Ghat' 역을 맡아 게임 내에서 주운 온갖 잡동사니로 쌍권총, 머스켓총, 해골 폭탄 등을 만들어 무기로 사용할 수 있으며 회피 콤보, 넉백(knockback) 마무리 펀치, 잡아 던지기 등의 각종 기술을 구사해 다양한 적들과 실감나는 격투를 펼칠 수 있음

 www.aceteam.cl

Sony의 남미 콘솔게임 시장 3단계 진출전략

남미 시장 공략 가시화하는 Sony America

- ◆ SCEA의 영업 담당 부사장 Ian Jackson은 BMO Capital Markets Interactive Entertainment Conference를 통해 PlayStation2를 앞세운 남미 시장 진출 계획을 설명, 남미 시장을 진출 단계별로 3가지로 나눔
 - 1단계: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 2단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베네수엘라 이들 시장에는 지난 11월 PlayStation2를 출시

- 3단계: 우루과이, 파라과이, 브라질. 특히 브라질은 남미에서 가장 시장성이 커 큰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2009년 봄 출시 예정

남미시장으로 눈 들리는 Sony, “성장가능성 큰 남미에 집중 투자”

- ◆ 남미 시장은 인구 규모가 크고, 면적이 커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캐나다 등 북미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큼
- ◆ Sony는 저렴한 가격의 PlayStation2를 앞세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남미시장을 공략할 계획
 - PlayStation3는 올 한해 1,000만 대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본,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있는 반면, 출시한 지 9년이 된 PlayStation2는 경제 불황 속에서도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어, 올 한 해 PlayStation2의 판매량은 350만 대에 이를 전망

e스포츠대회 KODE5, 남미 11개국서 개최

‘KODE5’, 라틴 아메리카 지역 예선 개최

- ◆ 국제 게임 토너먼트 대회인 ‘KODE5’가 라틴 아메리카지역 대표팀 선발을 위한 남미지역 예선경기 일정을 지난 12월 17일 발표
 - e스포츠 이벤트업체인 ProGamer Consultores SAC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KODE5’ 라틴 아메리카 지역 예선에는 현재 ‘KODE5’를 독자적으로 추진 중인 브라질을 제외한 아르헨티나, 페루, 베네수엘라 등 총 11개국 남미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이며, 예선 경기의 승자는 2009년 3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될 라틴 아메리카 지역 결선 진출권을 확보하게 됨
 - ‘KODE5’ 라틴 아메리카 지역예선은 2009년 1월 24일부터 2월 22일까지 아르헨티나를 시작으로 칠레, 볼리비아, 파라과이, 페루,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멕시코의 7개국에서 개최될 예정
 - 한편, KODE5 Revolutionary Council의 Lester Lau 회장은 "KODE5는 남미 지역 최대 규모의 게임 대회로, 최고의 파트너 ProGamer Consultores SAC 역시 KODE5 라틴 아메리카 대회의 가능성을 알아봐 주었다"며 이번 대회에 기대감을 드러냄

 www.kode5.com  www.pgconsultores.net